

■ 2021 신축년 설 명절 마무리 / 다시 일상으로...

“내년 설에는 온 가족이 꼭 함께 해요”

코로나19 차단 방역위해
가정마다 차례 간소하게
“연휴기간 친인척과 친구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워”
도내 유명 관광지 복세통



14일 제주국제공항은 설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고 떠나려는 관광객들과 귀경객들로 복세통을 이뤘다. 강희만기자

“내년에는 온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설날이 되었으면 하네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2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은 귀경객보다는 여행을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의 카트에는 골프방 등 여행 짐이 한가득 실어졌고, 이들은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채 대화를 최대한 자제했다.

특히 이날 공항 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인지 예년처럼 부모, 친지 형제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귀경객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공항 인근 도로에는 수십대의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 돼 있었고, 귀경객들은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있는 가족들과 창문 너머 작별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안으로 향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이모(55)씨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공항 내부는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향을 찾았다가 다시 귀경길에 오른 강모(29)씨는 “집안 사정으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했지만 연휴 기간동안 친인척, 고향 친구 등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내년에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설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제주공항에는 입도 행렬도 이어졌다. 공항 도착장 게이트를 통해서도 골프백을 카트에 실은 관광

객과 1~4명 단위로 구성된 관광객 등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공항 주차장에 마련된 렌터카 셔틀버스 정류소에도 20~30명의 관광객이 긴 줄을 늘어 선 채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10~14일) 제주 방문객은 15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3만1489명, 11일에는 3만6326명, 12일 2만8136명, 13일 2만5135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4일에도 약 3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하는 등 설날 전후 닷새간 하루 평

군 3만여명이 제주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관광에 나선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유채꽃밭 명소와 도내 주요 관광지에는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유명 음식점, 카페에는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편 도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국내 첫 여성 소방준감 탄생 제주출신 고민자 소방정 승진



제주출신 고민자(사진) 소방정이 한국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준감’이 됐다.
소방정은 지난 10일 고민자 소방정을 소방분석제도과장으로 발령하면서 소방준감으로 승진시켰다.
소방준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일반공무원 3급,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이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2년만에 처음이고 여

성이 소방직에 처음 진출한 1973년 10월 이후 약 47년4개월 만이다.
지난 1984년 소방사로 제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고 과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제주동부소방서장, 제주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등을 거쳤다. 2018년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중앙 119구조본부 상황실장, 소방청 운영지원과 서무팀장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준비단장 등을 역임했다.
고 과장은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소방준감으로 임용된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해녀 최근 1년사이 207명 감소

지난해말 기준 3613명 활동

감소를 막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물질을 하는 현직 해녀의 수가 총 3613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중단했던 물질을 재개하거나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물질에 나선 해녀가 30명으로 집계됐지만 고령화와 질병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해녀 수가 237명에 달하면서 전체 해녀수

감소를 막지 못했다.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해녀가 2141명, 서귀포시가 142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4명 >30~49세 77명 >50~69세 1400명 >70세 이상 2132명으로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전체 59%를 차지했다.
도내 최고령 해녀는 91살의 김모(우도)씨로 물질 경력이 76년이다. 최연소 해녀는 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정모(25·대정읍 일과리)씨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4년만에 고병원성 AI 검출 ‘비상’

한림읍 오리 농장 6000여마리 살처분... 도, 가금류 전수검사키로

제주 지역에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한림읍의 한 농가가 사육하는 오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3일 ‘H5N8’형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농장은 최근 들어 오리 산란율이 떨어지자 지난 12일 제주시청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도방역당국은 지난 12일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이 농장이 키우는 오리 6045마리 등에 대해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했다.
또 도는 해당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에 있는 가금농가 51곳(100여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도내 전체 가금류 260만마리에 대한 전수검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병원성 AI가 농가 감염으로 이어진 건 2017년 이후 두번째다. 이번 겨울 들어 도내 철새도래지에서는 6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지난 2017년에는 전북 군산의 한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제주로 반입된 오골계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

돼, 이 오골계를 산 제주시 이호동 농가를 포함해 도내 34곳 농가에서 가금류 1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고병원성 AI가 농가 감염으로 이어진 도내 첫 사례였다. 당시를 제외하곤 도내에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농가 전파로 이어지지 않았다. AI는 차량, 사람을 통해서도 가금류로 전파(교차 오염)되지만 철새도래지는 워낙 인적이 뜸하다 보니 농가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에 농가 감염이 나타나며 제주지역 닭과 오리고기,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청산가리 10배 독성 ‘파란선 문어’ 발견

지난 9일 신촌포구서 확인
2012년 복촌서 최초 발견돼
해경 “절대 만지지 말아야”




제주에서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독성이 높은 ‘파란선 문어’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 사진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17분쯤 제주시 신촌포구에서 파란고리 문어를 잡았다는 신고를 접수, 해당 문어를 수거했다. 이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수산물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파란고리 문어가 아닌 파란선 문어로 확인됐다.
맹독성인 파란선 문어는 호주 인근 해역에서 흔하게 발견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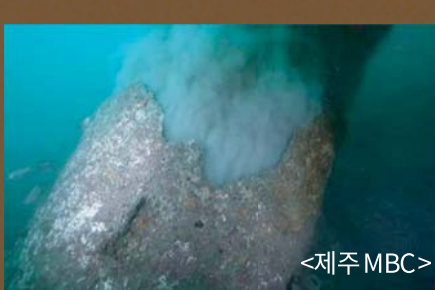
만,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태평양 연안 여러 해안에서도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시 조천읍 복촌리 해안에서 발견된 것이 전국 최초 사례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이나 해변을 찾는 방문객은 맹독성 문어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



<제주MBC>



<제주투데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제2공항 여론조사 실시!

쓰레기섬, 동물바당을
후손에게 물려줄 순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제주를 먹여살릴 최고의 자산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

D-Day

모르는 전화도 받아주세요 | 여론조사의 모든 문항에 답변해주세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